

# “한강의 소설은 서정적이고 섬세... 상처 입은 영혼 그려”

##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말하는 한강



한승원 작가

“강(한강)의 소설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섬세합니다. 어린 상처 입은 영혼의 실존이랄까, 그것을 심감있게 묘사하지요. 그 후내는 우리 같은 앞선 세대 작가는 결코 하기가 쉽지 않죠.”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아버지인 소설가 한승원은 딸의 작품에 대해 그렇게 평가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소 지쳐 있었지만 잔잔한 흥분이 깃들여 있었다.

한승원 작가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신 줄 알았다”며 “무척 당혹스러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한 가닥 기대는 있었다”며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영광한 사고’를 치기 때문에 혹시 받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도 발표 10일 정도 전에 나이 많은 작가들이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하고 후보에도 없던 작가가 선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10월 초 언론에서 내보내는 추측성 기사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게 못 되더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도 어느 언론에서 후보 맨 말미에 황석영 작가와 한강을 거론했더라”며 “그다지 기대를 안했지만 한림원 심사위원들이 ‘사고’를 치니까 아버지로서 수상 기대까지 접을 수는 없었다”고 전했다.

한승원 작가는 수상 소식을 듣고 부인 입감은 여사와 열싸우고 춤을 췄다고 했다.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서 자식들을 잘 낳아 길러준 것이 고마웠다”는 것이다.

한승원 작가는 ‘잔치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딸이 ‘세계에서 전쟁이 나고 그려는데 하지 않는

## “한림원 심사위원들 ‘사고’ 자주 쳐 수상 기대하고 있었다 수상 기쁘지만 세계 곳곳 전쟁하는데 무슨 잔치냐고 말해”

것이 맞다’고 했다”는 말을 했다. 원래는 지금 살고 있는 안양면 해산토굴과 태어난 회진리에서 두 번 잔치를 하려 했지만, 밤새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놓은 딸의 깊은 사유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평가를 했다. “강이가 포착한 것은 국가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짙게 묻혀 사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어린 삶의 슬픈 실존이 소설의 핵심을 이룬다”는 거였다.

“나와 같은 3세대 작가들이 활동하던 80년대가 리얼리즘 시대였다면 강이는 4세대 작가들입니다. 3세대들은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저항적인 작품을 썼지요. 소설적인, 미학적인, 기법적인, 심미적인 장치보다는 대체로 작품이 고발로 끝나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4세대 작가들은 저항하는 이후의 어린 삶에 포착을 했어요. 특히 강이가 주목한 것은 국가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에 짙게 묻혀버린 사람들, 어린 삶의 슬픈 실존이 소설의 핵심 토대를 이룹니다.”

한 작가는 딸의 작품을 예로 들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채식주의자’ (맨 부커상 수상 작품)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 트라우마에 잠겨 있는 삶이 주요 테마다. 다음의 작품이 5·18을 모티브로 한 ‘소년이 온다’인데, 소설은 저항이나 항거를 밀도있게 그린 것이 아니라 항쟁기간 이후의 실존,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췄다. 미려한 문체의 미학과 아울러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깊이있게 추구한 소설이다.

그는 “딸의 문장은 지극히 서정적이며 아름답다”며 “자신과 같은 3세대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흉내 낼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맨부커상 심사위원들이 이번 한림원 심사위원들은 그런 미학적인 면들을 감안한 듯했다. 그들

은 작품에서 어떤 리얼리즘을 느끼면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는 것 같다”며 “강이의 소설이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런 연유도 있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한 작가는 리얼리즘의 유입과 이후의 문학 사조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사실 유럽의 발자크 사실주의, 리얼리즘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2세대, 3세대들이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창 풍미하던 무렵 남미 문학이 들어왔죠. 대표작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이지요. 신화적이며 환상적인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리얼리즘을 연구하는 학자들 평론가들 가운데는 내가 젊은 시절부터 썼던 작품에 그런 분위기가 섞여 있다고 봤습니다. 내 소설은 리얼리즘 정도를 거치지 않은 작품이 많죠. 전남대 교수인 장일구 평론가는 내 작품에 대해 ‘리얼리즘 작가들의 ‘무덤’은 신화를 기웃거리는 것’이라고 평한 바 있지요.”

한 작가는 평론가의 말은 ‘더 이상 리얼리즘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자신을 포함해 3세대 소설은 리얼리즘 비평 속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는 말이었다. 그와 달리 4세대 작가들은 리얼리즘 본 궤도로 나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영예를 안은 한강 작가에게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심미적이며 시적인 문체와 삶의 본질을 전착하는 주제식은 향후 K문학의 세계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 노벨상 수상작가들이 70, 80대 노년의 때에 영광을 거머쥘 것에 비하면 한강 작가는 이제 고작 50대 초반이다. 한승원, 한강 두 부녀의 소설 창작의 신화는 다시 시작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3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외벽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주민·출향인·오월단체 “광주의 5월 세계에 알리는 계기 기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씨가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자 광주의 5월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민은 물론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들도 커뮤니티에서 한 작가의 수상을 자랑스러워하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5·18기념재단은 한 작가 수상발표 다음날인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한다”고 발표했다.

그의 대표작 하나인 ‘소년이 온다’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이에 재단은 ‘소년이 온다’ 분판 10여권을 재단에 비치해 방문객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단은 “한강 작가의 수상은 1980년 5·18이 광주를 넘어 전국을 넘어 과거 국가폭력의 역사를 극복

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쁜 일”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5·18의 진상이 국내외로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40만부 이상 판매된 ‘소년이 온다’는 영미권에서 ‘휴먼 액트’ (Human Acts)로 번역되는 등 20여개 국에서 출간돼 ‘오월’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한강 작가는 1980년의 5·18민주화운동의 경험을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1980년 당시 광주의 아픔을 가장 문학적으로 알리는 작품을 쓴 그의 수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이미 그의

작품이 연극으로 탄생한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해석 작업이 이뤄져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유족회장도 “당시 광주의 시공간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의 참상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작품을 쓴 그의 수상은 광주의 아픔을 이미 세계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의 수상으로 5월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재단과 오월단체 뿐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모두 한씨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일제히 축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구 중흥동의 한 주민은 “광주 출신이고 우리동네에서 자고 자란 그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최근 옷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역의 자긍심을 세워준 한 작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웃어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강,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소재작품 작명에 참여

### 부딪침 소리·겹침 소리·처음 소리

광주 출신 한강 작가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의 소재작품(부딪침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 작명에 참여한 사실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강 작가의 시를 기반으로 한 개막 공연도 펼쳐지는 등 한강 작가와 광주비엔날레와의 인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한강 작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소재작품 작명부터 개막 공연까지 일련의 과정을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한 작가라고 밝혔다.

한강 작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의 3개 섹션 소재작 ‘부딪침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를 작명했다. 니콜라 부리

오 예술감독의 전시 기획 의도가 우리말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

또한 지난 9월 6일 개막 공연 ‘판소리 마당’은 한강 작가가 직접 낭송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참여 작가들의 퍼포먼스가 펼쳐진 바 있다. 글은 ‘판소리, 모두의 울림’ 도록에 ‘여는 글’로 수록돼 있다. 여는 글은 ‘공간(판)’ 내 존재들의 소리를 동시에 미술로 탐구하는 이번 비엔날레 주제와 조응한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광주정신을 치열하게 탐색해온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은 광주비엔날레가 추구해 온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를 모티브로 한 예술이 세계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은 오는 12월 1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대표관광지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 일본, 대만.. 마침내 홍콩까지!  
**아시아 신행로를 열다**

대한민국 크루즈 선도 기업  
13년 연속 크루즈 전세선 운항  
대한민국 크루즈 승객 1위

Costa  
코스타 세레나호 · 11만 4천톤 · 전장 : 290m · 전폭 : 35m · 수용인원 : 3,780명 · 승무원 : 1,100명

GRAND | HYATT  
제주  
예약 · 문의 : 1533-1234

기적포함내역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된 당일여행 및 개별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기사경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체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안전경비내역] ●여행유료 / ●여행지세 / ●입수권 / ●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음  
●항공기행 467호(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인 영인보증보험 10만원 가입 ●기획여행 보증보험 50만원 가입 ●여행출발지 : 인천/김해/대구/부산/청주공항 ●여행보험센터 : 1588-8692  
●최소출발 10명(일부상품제외)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교통편 : 항공, 버스, 해리,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표, 입장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사 1688-1104

한국 / 일본 / 홍콩 / 대만  
**아시아 4개국 크루즈 11일**

2025년 1월 6일 인천항 출항

조기예약 30만원 할인 + 선착순 선실 우선 배정  
예약 후 24시간 이내 1인 예약금 100만원 입금 및 10월 31일까지 완납 조건

내 측 2,890,000원~ 오션뷰 3,290,000원~  
발코니 3,690,000원~ 스위트 4,490,000원~

인천항 - 오키나와 - 이시카기 - 홍콩(1박 2일) - 기륭 - 부산항

1 홍콩의 낮과 밤을 모두 즐기는 홍콩 OverNight  
2 겨울에 만나는 따뜻한 겨울(평균온도 22℃)  
3 크루즈 특별 공연 · 이은결의 일루션 특별공연, 셀럽 특별 콘서트  
롯데관광 크루즈 스타, 가수왕 선발대회  
4 13년 노하우! 한국맞춤형 특별전세선

롯데관광만의 특별함! 스페셜 공연!

일루션리스트 이은결 선상 퍼포먼스  
방송인/가수 임백천 선상 콘서트  
가수 김수찬 트롯 콘서트